

대행 스님

이 육체에서 마음이 벗어나면 이 몸뚱이라는 물질도 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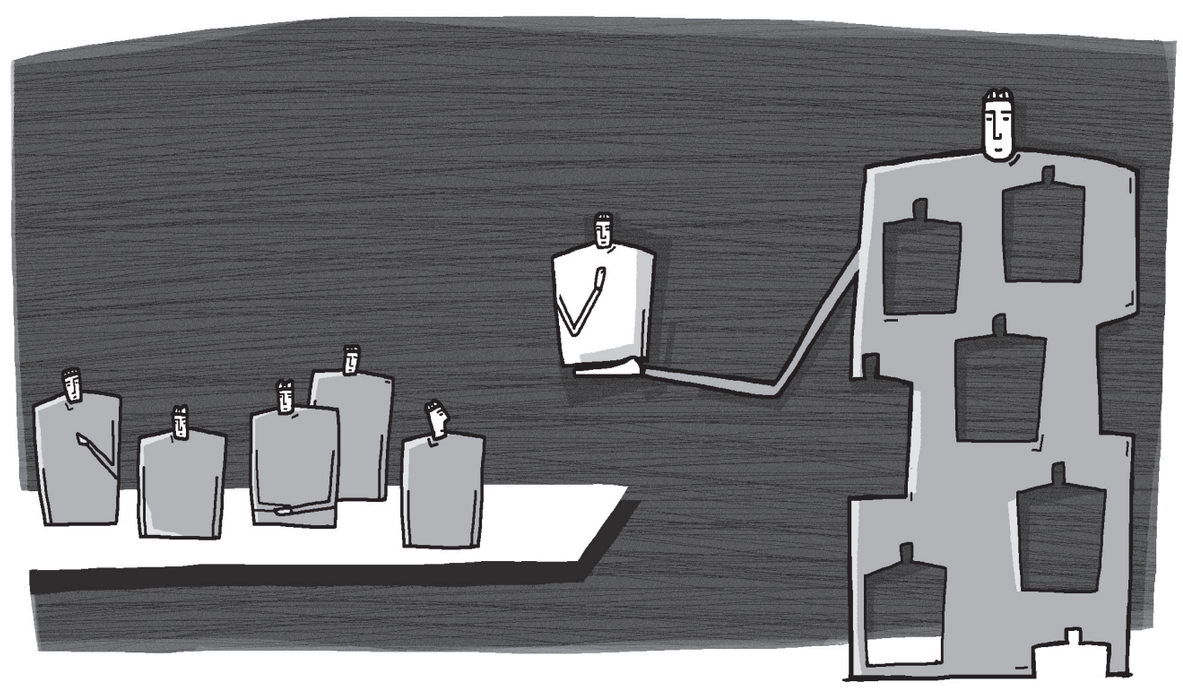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항상 공해서 돌아가는 한마음의 도리지만, 차원에 따라서 또는 자기의 가락에 따라서 각기 천차만별로 살림살이가 나누어져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여러분과 더불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것도 역시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에 부처님께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지어내서 사십구 년 동안 설하신 것이 아니고, 또 없는 걸 지어서 말씀하시거나 행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와 더불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진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기에 여러분하고 이렇게 서로서로 길 없는 길을 걸으려 합니다. 손 없는 손, 발 없는 발 또는 행 없는 행을 그대로 여여하게 걸림 없이 같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모든 일체 삼라대천세계가 다 공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공했느니라"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색이 즉 공이고, 공이 즉 색이니라." 하는 것도 인정하시죠? 우리가 지금 한 찰나의 살림살이라는 등 가락에 맞춰서 여러분이 차원에 따라서 살고 있다는 그 도리도 알고 계시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인간이 힘이 없다든가 힘이 있다든가 하는 이러한 논쟁, 이러한 모든 것을 놔야 되지 않나, 버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평발이요, 내가 아니 딛는 데가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내 손 아니 닿는 데가 없고, 내 몸 아닌 것이 없고, 내 아픔 아닌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얘기합시다.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어느 조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네가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 너를 줄 것이로되, 네 주장자가 없다면 내가 네 주장자를 뺏을 것이니라." 하셨다 이겁니다. 그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 전체가 포함돼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닿는 데가 없다' 하는 그 뜻, 우리가 찰나에 돌아가면서 나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이 돌아가는 그 행과 뜻 또는 말씀, 이것이 동일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대로 여여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주장자 얘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찰나찰나 나투면서 내가 네가 될 수도 있고, 네가 내가 될 수도 있는 뜻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업이나 선업이 다 붙어서 돌아가는 한마음의 구성체, 이 여러분 몸속에 다 구성체가 있듯이 그 구성체가 한마음의 지배인에 의해서 응하고 돌아간다는 거,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것을 고덩어리라고 했고 '고 하나만 녹인다면 집도 없고 멸도 없고 도도 없느니라' 하신 말씀도 거기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무슨 인정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그것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생각을 잘해 보시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주장자 얘기했듯 이 마음의 도리는, 우리가 조그마한 데서만 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 삼천대천세계의 어떠한 물건이든지, 어떠한 혹성이든지 별이든지, 무엇이든 막론해 놓고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같이, 마음의 도리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의 씀씀이도 같이 돌아갑니다. 씀씀이는 우리가 깨달아야만 같이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방치하는 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 공부를, 공부라고 하기 이전에 사람이 돼서 부처를 이룬다는 것은 부처가 이루어지면 관세음보살이 나이고 부처가 나이고 모두 나라고 했지만, 행과 말과 뜻이 동일하게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스스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하면 허공 잡는 얘기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뒷받침을 이렇게 몇 마디 해 놓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예전에 말씀해 놓으셨노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몸뚱이라는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몸뚱이가 살고 있는 집은 지구입니다. 지구인데 우리 몸뚱이가 수명이 있듯이 지구도 수명이 있다고 봅니다,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인간만 생명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전체 생명이라고 볼 때 그래도 고등 동물이라고 한다면 인간을 최고로 치죠. 인간이 돼야만 이 부처를 이룰 수 있고, 한마음으로 전체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지혜를 가질 수 있고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그렇게 깨달아서 포용력 있게 지혜롭게, 참 걸림 없이 갈 수 있다면, 아까 주장자 얘기했듯 저런 달세계나 저런 모든 혹성들에게도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은 지수화풍에서 소생돼 가지고 지수화풍을 지금 쓰면서 살고 있고 지수화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수화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화풍에서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그 속에서, 복합적인 재료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깐요. 그 질량은 수만 개의 이름을 가졌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발이 되는 것도 그렇고, 참 과학이 발전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발이 되고 또 인간이 많이 늘어나고, 그것이 증강된다고 할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또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깐 그건 식량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자원이나 식량을 더 만들지 않고 곶감 꼬치 빼 먹듯 빼 먹으면 그것은 마치 은행에 예금해 놓은 것을 꼬박꼬박 빼다 쓰기만 하고, 벌지 않아서 나중에는 통장이 비는 것처럼 살림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없을 때는 가져올 수도 있고 있을 때는 남에게 줄 수도 있는, 그런 영향력과 지혜로운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즉, 이 육체에서 마음이 벗어나면 이 몸뚱이라는 물질도 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면 굴릴 수 없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독 안에 들어 있다면 독을 굴릴 수가 없고, 독 안에서 벗어난다면 독을 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독이 혹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혹성 안에 있는 재료를 마음대로 용도에 따라서, 크나 작으나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료라든가 이런 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그렇게 멀고 먼데 어떻게 조달이 되느냐. 구름 잡는 얘기라고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분명 우리의 능력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진리이고 길입니다. 또 그 길을 부처님께서 가르치셨고요. 또 나 역시 없는 거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한생각은 체가 없어서 요기 요거 (법상을 가리키시며) 생각하는 거나, 저 달세계 생각하는 거나 둘이 아니라 이 소립니다. 그런 까닭에 그것도 서로 오고 감이 없

☞ A32면으로 계속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한마음선원은
불법의 궁극적 목표인 한마음을 깨닫게 하는 도량으로서
모든 중생이 본래로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을 밝혀
성불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www.bs.hanmaum.org | 051)403-7077

부설 한마음유치원
www.한마음유치원.kr